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jhlee8604@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올 들어 중국·동아발 유럽·중동행 컨테이너 해상운임 큰 폭 하락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Amber Train, 북유럽-서유럽 간 철송 시범운영 개시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러시아, 북합운송 서비스 신설 통해 베트남 수출입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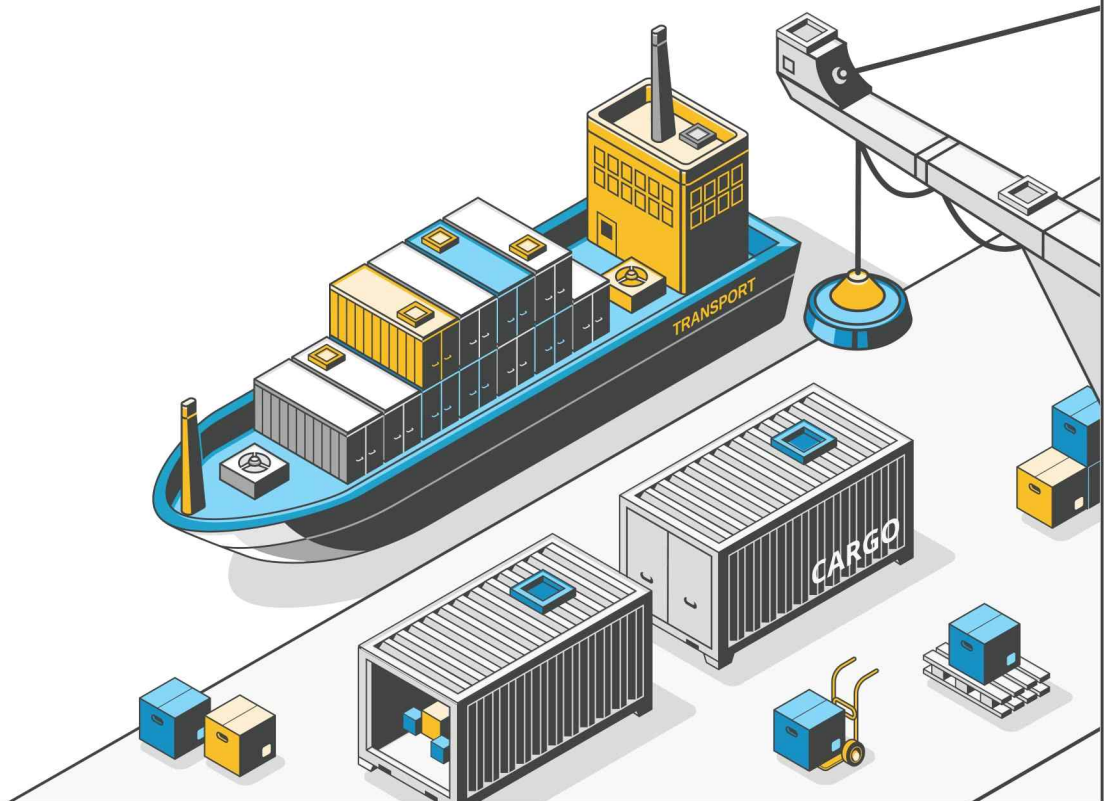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미 철도 노사, 파업 앞두고 잠정 합의 ... 노조는 찬반 투표 예정

● 공지사항

- 제18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안내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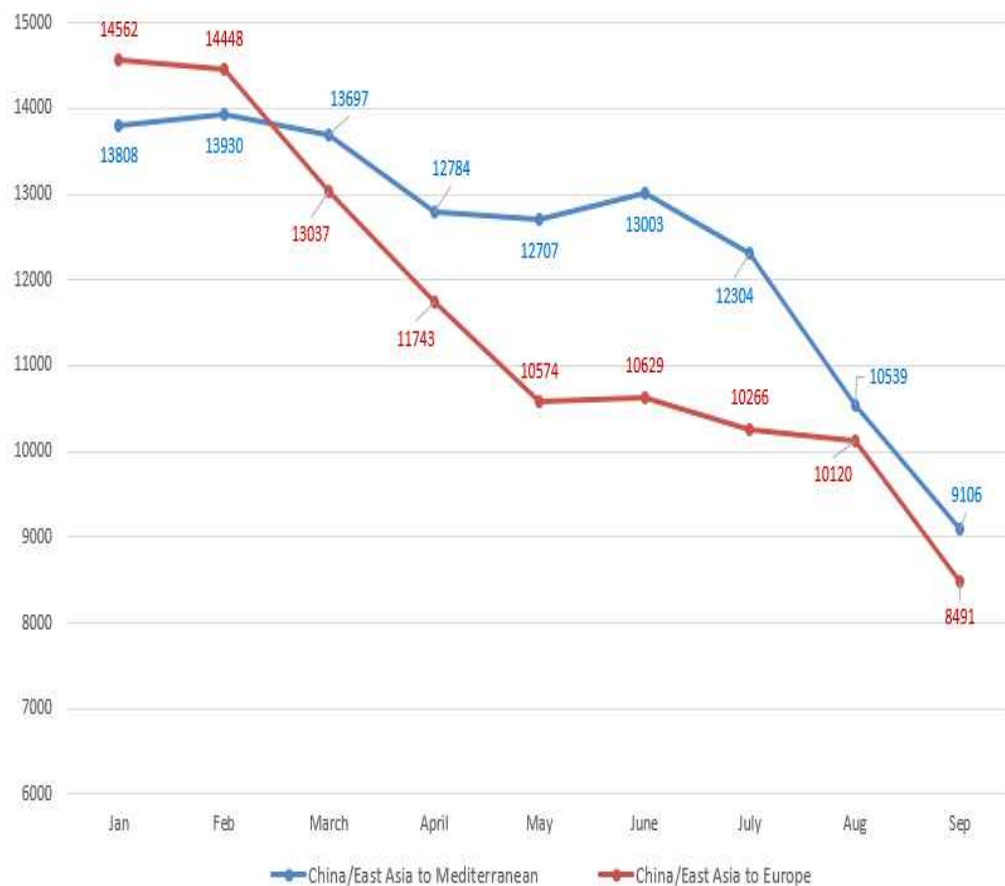


올 들어 중국·동아발 유럽·중동행 컨테이너 해상운임 큰 폭 하락

▶ 금년 들어 중국·동아시아발 유럽 및 중동행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Freightos International Freight Index 자료에 따르면 중국·동아시아발 유럽 및 중동행 컨테이너 화물(40 피트 기준) 해상운임은 각각 2022년 1월 14,562달러와 13,808달러에서 이번 9월 8,491달러와 9,106달러로 약 41.7%와 34.1%씩 하락함
- 이러한 컨테이너 해상운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운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화물운송 수요에 맞춰 선박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시켰으나 금년 들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요국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화물운송 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중국·동아시아발 유럽 및 중동행 컨테이너(1FEU 기준) 해상운임 변화(2022.01-202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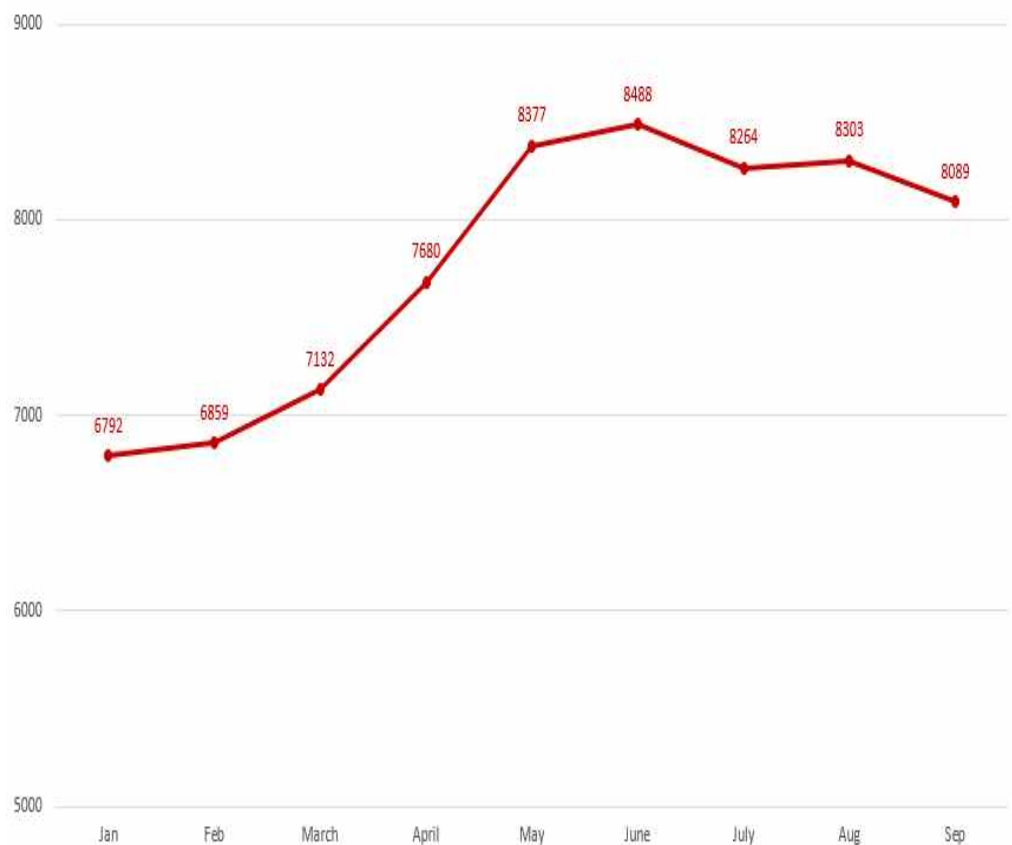
자료 : www.gscentell.com, (검색일 : 2022.9.20.)

▶ 반면 유럽발 미국 동안행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경우 연초 대비 상승함

- 유럽발 미국 동안행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2022년 1월 6,792달러에서 9월 8,089달러로 약 19.1% 상승함
- 지난 6월 8,488달러 연중 최고점 대비로는 약 4.7% 하락했지만 중국·동아시아발 유럽 및 중동행 컨테이너 해상운임과 다른 양상을 보인 주요 원인은 다른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의 소비 수요에 따른 높은 화물운송 수요 때문으로 분석됨

유럽발 미국 동안행 컨테이너(1FEU 기준) 해상운임 변화(2022.01-2022.09)

(단위 : 달러)



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9.20.)

참고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9.20.)

Amber Train, 북유럽-서유럽 간 철송 시범운영 개시

- ▶ Amber Train 프로젝트의 첫 열차가 9월에 13일 에스토니아의 Muuga 항을 출발해 다음 날 리투아니아 Kaunas Multimodal Terminal 터미널에 도착함
 - 본 열차는 상품 적재, 국경 운영, 문서 및 데이터 교환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목재 자재, 이탄 및 건축 용품을 리투아니아로 운송하는 시범운행을 실시함
 - 시운전 평가 후 Muuga-Kaunas-Muuga 노선은 주 2회 정기 운영될 예정임
 - Amber Train은 AS Operail이 주도하는 발트해 협력 프로젝트로 협력 파트너는 에스토니아 철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 철도 화물 운송 회사인 LDZ Cargo 및 LTG Cargo, 무가의 HHLA TK 에스토니아 하역 터미널 및 리투아니아의 Kaunas Intermodal Terminal임

Amber Train 첫 열차 시범 운영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검색일 : 2022.9.20.)

➤ Amber Train의 잠재 고객은 북유럽 국가 또는 에스토니아에서 서유럽 혹은 반대방향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임

- 현재까지 핀란드에서 에스토니아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에스토니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서유럽까지는 대부분 트럭으로 운송해 왔음
- Amber Train은 이러한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보다 4배 적은 연료를 소모하고 6배 적은 CO2를 배출하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트럭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러시아, 복합운송 서비스 신설 통해 베트남 수출입 확대 추진

- ▶ 베트남과 러시아는 하이퐁 및 호치민-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해상운송과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철도를 활용한 복합운송 서비스를 본격 개시함
 - 지난 9월 6일 베트남과 러시아 양국은 호치민과 하이퐁항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하역 후 철도를 통해 모스크바까지 연결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함
 -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교역을 점차 늘려갔으며, 베트남에서 모스크바까지 연결하는 복합운송 서비스 개시를 통해 양국 간 물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 베트남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신규 운송루트 확대로 베트남발 유럽행 화물의 운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 간소화로 수출입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복합운송은 러시아 국영철도기업(RZD)과 FESCO가 각각 철도와 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물 위치추적 및 통관 간소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와 베트남 항만을 오가는 선박은 지난 5월 이후 매주 4항차씩 운영되고 있으며, 총 물동량은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달 까지 5,000TEU에 달해 당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블라디보스토크항 물동량은 적극적인 신규 노선 확대에 의해 경제제재의 어려움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FESCO가 운영 중인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행 철도



자료 : www.vietnamnet.vn (검색일 : 2022.9.20.)

- > 해상과 철도를 활용한 양국의 복합운송 서비스는 아세안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물류루트가 될 전망이며,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세안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시금 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 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베트남 주요 항만으로 향하는 항로 외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 아세안 주요 국가 대상 항로 신설 및 복합물류서비스 제공 등으로 아세안 국가와 수출입 및 물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미 철도 노사, 파업 앞두고 잠정 합의 ... 노조는 찬반 투표 예정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철도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시킴에 따라 철도파업을 방지함

- 지난 15일 미국화물철도와 노조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방지했음
- 잠정 합의안은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 노동부 Marty Walsh 장관 주재로 20시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음
- 미국철도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AAR)는 지난 목요일 BLET(Brotherhood of Locomotive Engineers and Trainmen)와 SMART-TD(Sheet Metal Air, Rail, and Transportation Workers)와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음

▶ 지난달 미국 정부는 철도 노사협상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음

- 지난 7월과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위원회를 소집해 노동조합과 철도 회사가 난국을 해결할 방법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철도 시스템은 미국 공급망의 중추이고, 이번 합의는 섣달이 가져올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힘
- 미국철도협회는 파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하루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음
- 미국 교통 통계국(U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비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미국 화물의 약 30%가 철도로 운송됨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노사 잠정 합의가 수만 명의 철도 노동자와 노동의 존엄성을 위한 승리라고 전함

바이든 대통령의 철도 노사 잠정 합의에 대한 연설



자료:The White House Youtube 채널, www.youtube.com, (검색일 : 2022.9.19.)

➤ **잠정 노동 합의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24%의 임금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 등을 논의했음**

- 미국철도협회는 잠정 합의안이 약 60,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간략한 성명을 통해 밝힘
- 철도 노조는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이 조건을 검토하고 비준 투표를 통해 승인할 때까지 이 합의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고 밝힘
- 철도 노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일상 및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 및 수술을 결근 처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미국 Class 1 철도는 철도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 BLET와 SMART-TD 두 개의 가장 큰 노조가 철도 노동법에 따라 '냉각' 기간이 종료되고 조합원의 파업이 허용되는 금요일 이전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음
- 지난 화요일 Norfolk Southern 철도는 홈페이지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철도파업에 대비해 수요일 오후 5시에 복합운송화물 반입용 게이트를 닫을 것이라 전함
- BNSF는 지난 월요일 온도 제어 복합운송 장치가 복합운송 시설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수요일에 온도에 민감한 화물에 대한 적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그리고 BNSF는 지난 수요일에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없다고 전하며 고객들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외부 게이트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힘
- Union Pacific은 지난 화요일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작업 중단 시 이러한 위험 상품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RSSM(레일 보안 민감 물질) 적재를 금지했다고 밝힘

제18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안내

제18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일시 | 2022. 9. 27. (화) 14:00 ~ 16:30

| 방식 | 온라인 영상회의(Webex)

(미팅번호: 2642 240 4500 / 비밀번호: 0927)

| 주최 |  해양수산부|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제국가 |  인도네시아

| 프로그램(안) |



시 간	주요 발표	지정 토론자
14:00 ~ 14:05	개회인사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14:05 ~ 14:30	경제특별구역 (Special Economic Zone) - Bambang Wijanarko 본부장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이현수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14:30 ~ 14:55	인도네시아 新 수도 이전 관련 물류투자기획 - 이현웅 사무소장 (고려해운 인도네시아법인)	김승현 상무 (포맨해운항공)
14:55 ~ 15:20	콜드체인 투자사업 기회 - Edy Putra Irawady 장관전문보좌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조지성 부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20 ~ 15:45	인도네시아 물류·운송 터미널: 현황 및 전망 - Dr. Safuan 기업대표비서 (Terminal Petikemas Koja)	구자림 실장 (부산항만공사)
15:45 ~ 16:10	물류 전문인력 양성 - Dr. Ahmad Malkan Lubis 물류 및 공급망 전문연구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철환 교수 (동서대학교)
16:10 ~ 16:30	종합 및 폐회	

*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영상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10월 4일부터 게시 예정

* 문의 :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권보배 전문연구원 | TEL . 051-797-4774 | E-mail. b2kwon@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